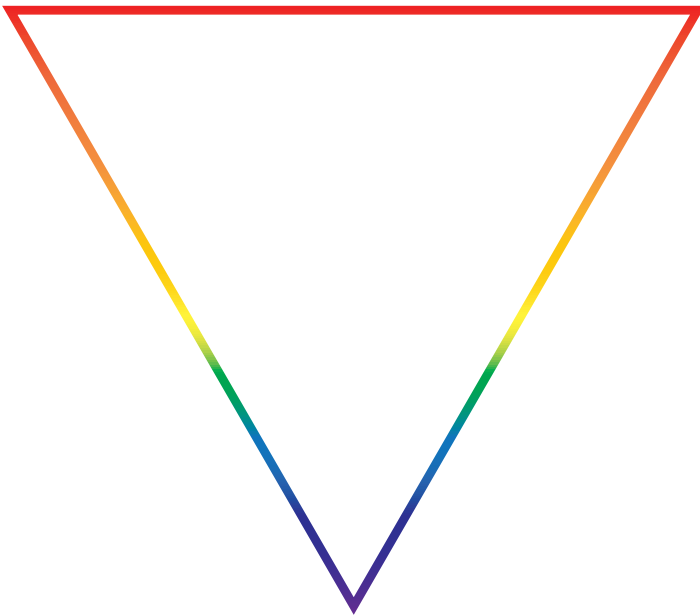


COULD BE NO.4:
RADICAL ANTICIPATION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



그런가요 4호:
급진적 기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COULD BE NO. 4: Radical Anticipation

Contributors: Julia Bryan-Wilson,
Giuseppe Campuzano, Wilson Díaz,
Övül Ö. Durmuşoğlu,
Lawrence La Fountain-Stokes, Zoe Leonard,
Carlos Motta, Jabulani Chen Pereira,
Alejandro Gómez de Tuddo, Cecilia Vicuña

Guest Editor: Miguel A. López
Series Editor: Yumi Kang
Editorial Assistant: Yeeun Lee
Translators (from English to Korean):
Jeong Hye Kim
Design: Moon Jung Jang, Jeongmin Lee

Publication Date: August 2016
Published by Kim Hong-hee
General Director, Seoul Museum of Art
Publisher: Seoul Museum of Art (SeMA)
61 Deoksugung-gil, Jung-gu, Seoul, Korea 04515
T. +82 2 2124 8800
sema@seoul.go.kr

www.mediacityseoul.kr
sema.seoul.go.kr

『그런가요』 4호: 급진적 기대

필자: 줄리아 브라이언-윌슨, 귀세페 캄푸자노, 윌슨 디아즈,
외볼 두르무조글루, 로렌스 라 폰테인-스토크스,
조이 레너드, 카를로스 모타, 자불라니 첸 페레이라,
알레한드로 고메스 데 투도, 세실리아 비쿠냐

책임편집: 미겔 로페즈
편집: 장유미
편집 지원: 이예은
번역(영한): 김정혜
디자인: 장문정, 이정민

발행일: 2016년 8월
발행인: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김홍희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T. 02 2124 8800
sema@seoul.go.kr

www.mediacityseoul.kr
sema.seoul.go.kr

All texts published in this volume are subject to
the copyright of each copyright holder.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uthors and the
Seoul Museum of Art.

©2016 Seoul Museum of Art. All rights reserved.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directed by
Beck Jee-sook, hosted by Seoul Museum of Art,
titled *NERIRI KIRURU HARARA*, and held from
September 1 to November 20, 2016—is publishing
four volumes of the non-periodical publication
COULD BE starting in April 2016 and up until the
opening of the Biennale. The publications will
contain well-timed issues discovered by various
contributor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viewpoints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the
Biennale and multiple contemporary art languages.
The guest editors of *COULD BE* are Yekyung Kil
(Korea, editor and translator), Keiko Sei (Thailand/
Myanmar/Japan, writer and curator), Chimurenga
(South Africa, publishing and exhibition project
team), and Miguel A. Lopez (Costa Rica/Peru,
writer and curator). Moon Jung Jang (US/Korea,
graphic designer) also collaborates as an art direc-
tor and design advisor.

이 책에 실린 글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 Seoul Museum of Art. All rights reserved.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예술감독 백지숙,
전시명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2016. 9. 1 - 11. 20)은 2016년 4월부터 비엔날레 개막 전까지
총 4번에 걸쳐 비정기 출판물 『그런가요』를 발간합니다.
이 일련의 출판물은 비엔날레와 동시대 미술 언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각기 성격과 시각을 달리하는 다양한 필자들이
발굴해내는 이슈들을 담아냅니다. 『그런가요』에는
김예경(한국, 편집 및 번역자), 게이코 세이(태국/미얀마/일본,
저자 및 큐레이터), 치무렝가(남아프리카공화국, 출판 및
전시 프로젝트팀), 미겔 로페즈(코스타리카/페루, 저자 및
큐레이터)가 각 호의 책임편집으로, 장문정(미국/한국,
그래픽 디자이너)이 디자인 협업 및 자문으로 참여합니다.

COULD BE NO. 4: Radical Anticipation

그런가요 4호: 급진적 기대

07	An Unstoppable Force <i>Miguel A. López</i>
14	Radical Anticipation <i>Julia Bryan-Wilson</i>
20	Árbol de Manos [Tree of hands] <i>Cecilia Vicuña</i>
22	Another Summer of Love <i>Övül Ö. Durmuşoğlu</i>
28	Queer Futures <i>Carlos Motta</i>
34	Sementerio [Sementery] <i>Wilson Díaz</i>
38	TRANSgressing the Framing of Feminism <i>Jabulani Chen Pereira</i>
42	Virgin of the Guacas <i>Alejandro Gómez de Tuddo / Giuseppe Campuzano</i>
44	Deep in the Wound: The Blood of Sexuality <i>Lawrence La Fountain-Stokes</i>
52	I Want a Dyke for President <i>Zoe Leonard</i>
54	Contributors

07	멈출 수 없는 힘 미겔 로페즈
14	급진적 기대 줄리아 브라이언-윌슨
20	손의 나무 세실리아 비꾸냐
22	또 다른 사랑의 여름 외불 두르무족루
28	퀴어의 미래들 카를로스 모타
34	세멘테리오 윌슨 디아즈
38	페미니즘의 틀을 가로지르기(TRANSgressing) 자불라니 첸 페레이라
42	구아카스의 여사제상 알레한드로 고메스 데 투도 / 쥐세페 캄푸자노
44	깊은 상처: 섹슈얼리티의 피 로렌스 라 폰테인-스토크스
52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조이 레너드
54	만든 사람들

An Unstoppable Force

Miguel A. López

The world envisioned by the curator of *Mediacity Seoul 2016* is programed with the visual language of speculative fiction and science fiction. The title of the Biennale, *NERIRI KIRURU HARARA*, which is derived from the poem “Two Billion Light-Years of Solitude” by Japanese poet Shuntaro Tanikawa, verbalizes the imaginary language of Martians.

As one of the key themes of the curatorial project is the relation between present and future, this fourth issue of *COULD BE* entitled **RADICAL ANTICIPATION**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reimagining the coming language of political involvement. Following the proposal of an imaginary vocabulary (i.e. the language of Martians, as the title of this edition of the Biennale suggests), this issue would like to consider feminisms and queer politics as forms of a radical, unstoppable language that foresees the future, helps us articulate what was impossible to say before, gives uncomfortable answers to obvious questions, fractures the centrality of humanness, and redefines our

멈출 수 없는 힘

미겔 로페즈

<미디어시티서울> 2016이 그리는 세계는 추론 소설과 과학 소설의 시각 언어로 설계되어 있다. 비엔날레의 전시 제목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는 상상 속 화성인의 말을 표현한 것으로, 일본인 시인 다니카와 슌타로의 시 「20억 광년의 고독」에서 따왔다.

주요 전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런가요 4호: 급진적 기대』는 정치 참여의 언어를 재구상해보는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 제목에서 이미 상상의 언어(곰, 화성인의 언어)를 제시했던 것에 착안하여, 4호는 페미니즘(들)과 퀴어 정치학을 급진적이며 거침없는 언어, 미래를 예견하는 언어로 간주해보고자 한다. 이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언어화하도록 도와주고, 자명한 질문에 불편한 대답을 제시하며, 인간다움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생명 그리고 비인간 행위자들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4호의 필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답변하면서 페미니즘과 퀴어 정치학이 지닌 추론적 에너지에 대해 고민한다. 그 두 질문은, “페미니즘과 퀴어

relationship with various forms of life and nonhuman actors.

The contributors to this fourth issue reflected on the speculative energies of feminisms and queer politics by responding in different ways these two questions: How will feminism and queer politics expand, reconsider, and reshape the significance of “implication” and “commitment” in times to come? What is it that feminisms and queer politics anticipate radically?

The various contributions of this issue are a response to those violent structures against non-binary identities and against those bodies that doesn't fit in the normative organization of gender roles and sexual behavior. The recent Orlando massacre (June 12, 2016), the largest mass shooting in a gay club in US history, is only one of a number of other global incidents of “normalized” homophobia, which include discrimination, harassment, systematic oppression, persecution, and murder, such the case of Tiwonge Chimbalanga, a refugee in South Africa sentenced to 14 years in prison because of committing the crime of “identifying as female and desiring to marry her partner” as photographer and trans rights activist Jabulani Chen Pereira points out, or the way the Turkish government attacked Is-

정치학은 장래에 시간의 ‘관여’와 ‘헌신’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확장하고, 재고하며, 재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페미니즘과 퀴어 정치학이 급진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다.

이번 호의 여러 필자들은 비이분화된 정체성, 일반적/표준적인 젠더 역할과 성적 태도의 조직화에 부합하지 않는 몸들에 반대하는 폭력적인 구조에 답변한다. 최근 2016년 6월 12일에 발생한 올랜도 학살은 미국 역사상 게이 클럽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다. 사실 이 사건은 차별, 희롱, 구조적인 억압, 학대, 살인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반화된’ 동성애혐오/공포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사진가 겸 트랜스 권리를 위한 행동주의자인 자블라니 첸 페레이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난민인 티윙게 침발랑가가 ‘여성으로서 (동성) 파트너와 결혼하려 한다’는 죄목으로 14년의 형을 받았던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프라이드’를 공격하며 사람들을 감금하고 이 평화 행진에 참여했던 수 천만을 상대로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다. “이 속살이 드러난 분노의 세계에서 과연 누가 안전한가? 억압적 체제가 안전의 수사학을 동반하는 점을 볼 때 보안은 심지어 그 체제를 움직이는 작동의 용어이지 않은가?” 미술사가이자 페미니스트 학자인 줄리아 브라이언-윌슨은 자신의 글에서 이 같은 물음을 던지면서, 글로벌 신자유주의 정부에서 공포와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tanbul Pride, detaining people and firing tear gas and rubber bullets against thousands of attendees who were marching peacefully. “Who is safe in this raw, angry world? Given the repressive regimes that accompany the rhetoric of safety, is security even an operative term?” asks art historian and feminist scholar Julia Bryan-Wilson in her text, suggesting how fear and the necessity of being protected has become one of the most effective techniques of global neoliberal governing. The way the Orlando massacre was used to strengthen Islamophobia is revealing not only of how the reproduction of anxieties, fear and social insecurity works within governing mechanisms, but also of the challenges that current social and sexual struggles have to face. As curator and queer writer Övül Ö. Durmuşoğlu recognizes: “The struggle doesn't stop with gender but continues to criticize issues of nationalism, class and militarism as well.”

This publication intends to consider how transfeminisms, sexual disobedience and other coalitions of non-normative bodies respond and redefine the logic of exclusion that organizes social spaces. Unlike governmental logics of protection, transfeminisms and queer politics recognize common vulnerability as an affirmative basis

작동하는지에 대해 역설한다. 올랜도 학살 사건이 이슬람혐오/공포를 강화하는 방식을 보면, 지배 매커니즘 안에서 불안, 공포, 사회적 불안전/불안정이 재생산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성적 투쟁이 직면한 과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큐레이터이자 퀴어 저술가인 외블 두르무족루는 “이 투쟁이 젠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주의, 계층 문제, 군국주의 같은 사안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포착한다.

이번 호는 사회 공간을 조직하는 배제의 논리에 맞서 트랜스페미니즘이나 성적 저항, 그 밖에 비-일반적/비-표준적 몸들의 동맹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재정의하는가를 생각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 차원의 보호 논리와 달리, 트랜스페미니즘과 퀴어 정치는 공동의 유약함을 확실한 정치의 근거로 인식한다. 이들은 우리 모두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수위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유약함의 조건에 관한 글로벌한 질서가 존재한다. 이에 준하여 보호를 받고 당연히 즉각적으로 방어 받는 생명들이 존재하는 반면, 존재 그 자체가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삶이 있다. 마르티니크 철학자 프란츠 파농은 이 같은 상황을 인간성 선상의 상부와 하부라고 표현한다. ‘존재의 영역’ 내부의 삶은 인종, 계층, 섹슈얼리티, 젠더 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이들은 법적 지배와 시민성 하에서 움직일 수 있다. 반면 ‘비존재의 영역’에 위치하는 삶은 인간 조건을

for politics. They remind us that the levels of threat that we are all exposed to are not the same for everybody. There is a global order of the condition of vulnerability. There are lives that are protected and whose defense is immediate and unquestionable. And there are others whose very existence is permanently under attack. This situation is described by Martinican philosopher Franz Fanon as living on the upper or lower side of the line of humanity: those living in the “zone of being” and whose privileges of race, class, sexuality and gender allow them to move under the rule of law and civility, and those living in the “zone of non-being,” who have been expropriated of their human condition and are subjected to acts of violence that would otherwise be unacceptable.¹ How can our bodies, certain desires, skin color, language, and gestures be the object of such hate simply for existing?

As queer scholar and performer Lawrence La Fountain-Stokes states in his text: “Love, understanding, and forgiveness are powerful tools that help us to heal and honor our victims and our dead, but rage and anger are also useful and at times absolutely necessary emotions that we must tap into to address the profound violence that

is visited upon us by bigoted individuals, antidemocratic governments and repressive states.” Rage and anger fueled a genealogy of disobedience where creative practices and visual culture have been intertwined with multiple social struggles, as the various artistic and activist projects mentioned in the publication show. These images and artworks share the need to break the privileged place that male, white and heterosexual subjectivity have held in the construction of narratives, such as the beautiful *Árbol de Manos* [Tree of hands] (1974) by Chilean artist Cecilia Vicuña, that symbolizes a colorful monument to solidarity and caring, or the drawings from the series *Sementerio* [Sementery] (1986) by Colombian artist Wilson Díaz, whose title is a wordplay that results from the combination of “semen” and “cemetery,” st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men, homosexuality and death according to conservative and moralistic social perceptions during the AIDS crisis in the mid-1980s. Or the compelling, brave and inspiring declaration called *I Want a Dyke for President* (1992) by American artist Zoe Leonard (a member of fierce pussy, a lesbian feminist group with roots in ACT UP), which was distributed as an anonymous, photocopied pamphlet during the 1992 presidential primary

빼앗긴 채, 다른 곳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¹ 우리의 몸, 특정한 욕망, 피부색, 언어, 몸동작이 어떻게 단지 존재를 위한 증오/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퀴어 학자이자 퍼포머인 로렌스 라 폰테인-스토크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과 이해, 용서야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하지만, 편협한 사람들, 비민주주의적 정부, 퇴행적 국가가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폭력의 문제를 건드리고 그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화와 분노 역시 유용하고 때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정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 예로 든 여러 예술적, 행동주의적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듯이 분노와 화는 창조적 실천과 시각문화가 다양한 사회적 저항과 뒤엉켜 있는 저항의 계보학에 불을 지폈다. 이 같은 이미지와 작품들은 내러티브 구축에 있어서 백인, 이성애자, 남성 주체의 특권화된 영역을 허물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칠레 작가 세실리아 비꾸냐가 만든 연대와 돌봄을 기리는 컬러풀한 상징적 기념비 <손의 나무>(1974), 콜롬비아 작가 윌슨 디아즈의 <세멘테리오>(1986) 연작 드로잉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 <세멘테리오>라는 작품의 제목은 ‘정액’(semen)과 ‘묘지’(cemetery)를 결합한 일종의 언어 유희 형태로, 1980년대 중반 에이즈 위기 당시에 정액-호모섹슈얼리티-죽음을 연결시켰던 보수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 개념을 강조한다. 한편 미국 작가

조이 레너드(엑트업에 뿌리를 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그룹인 피어스 푸시의 멤버)의 강렬하고 용감한, 마음을 울리는 선언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1992)를 들 수 있다. 이 텍스트 작업은 1992년 대통령 후보 선출 당시에 익명의 복사물로 배포되었다. 마이클 워너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이 글은 “구절 구절마다, 합법적인 정치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들과 떨어져 감으로써 일어나는 파워, 그 안에서 나오는 소망의 집합체이다.”²

퀴어 정치가 또 다른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저항과 정서적 인식의 영역에서 폭력의 도구로 만들어진 용어와 이미지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또한 과거를 돌아보고, 의학, 법률, 문화적 전통이 지배적인 성적 몸의 담론을 어떻게 구성해왔는가를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페루의 철학자이자 트랙퀸이었던 쥐세페 캄푸자노(리마, 1969-2013)는 지역의 종교성 형식을 탐구해왔다. 알레한드로 고메스 데 투도의 연작 <트랜스케이프>의 사진에 등장한 것처럼 그는 공인 받지 못한 토착적 퀴어 숭배의 양성적 경건함과 인물을 갱신하는 사진과 퍼포먼스를 통해 가톨릭 재현물의 신성함에 팽팽히 맞섰다. 카를로스 모타는 최근작 <사랑스런 마르티나>(2016) 조각 연작을 통해, 1803년 콜롬비아에서 ‘부자연스러운’ 몸을 가졌다는 이유로 식민 법정에 기소됐었던 ‘헤르마프로디테’ 마르티나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법정의

elections. Using professor Michael Warner's words: the text "is a set of wishes that, from clause to clause, gained in evocative power as they moved away from anything that might be imagined within legitimate politics."²

The possibilities of queer politics to create another kind of space reside in their ability to transform terms and images that were designed as instruments of violence in areas of resistance and affective recognition. That means also looking at the past and exposing the way medicine, law and cultural traditions shaped dominant discourses of the sexual body. Peruvian philosopher and drag queen Giuseppe Campuzano (Lima, 1969–2013) has been exploring forms of local religiosity, putting in tension the sacredness of Catholic representations through photographs and performances that updated instances of androgynous devoutness and figures of unauthorized indigenous queer worshipping—as appears in the photograph by Alejandro Gomez de Tuddo, from the series *Transcapes*. In his recent series of sculptures entitled *Beloved Martina* (2016), artist Carlos Motta evokes the story of Martina, a "hermaphrodite" that was prosecuted by the colonial court in Colombia in 1803 for having an "unnatural" body—

ultimately she was set free after medical examinations appointed by the court. Motta uses these images to accompany a deeply poetic visual essay about the urgency of not remaining silent and dreaming until ideologies of hate are defeated through enhancing the status of collective care. "*Queerness* is an unstoppable force powered by dreams of survival [...] We build dissenting forms of living [...] *Queerness* is language as freedom, is the radical anticipation of a future that is both hopeful and transformative." Transfeminism and queer politics are places for giving shape to the world that is necessary for us: words that heal and images that save lives.

San Jose, July 2016

1. Franz Fanon, *Black Skin, White Masks* (London: Pluto Press, 1968).
2. Michael Warner, "Queer and Then?"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January 1, 2012).

지시에 따라 의료 검진을 받은 후 풀려났다. 이 이미지들과 함께 모타는 매우 시적인 시각적 에세이를 함께 선보인다. 이 작업은 집단적인 돌봄의 상황을 확장함으로써, 증오의 이데올로기를 이겨낼 때까지, 침묵하지 않고 당장 일어나 꿈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퀴어성'(queerness)은 생존을 향한 꿈으로 움직이는, 멈출 수 없는 힘이다 [...] 우리는 의견을 달리하는 삶의 형태를 만든다 [...] '퀴어성'은 자유를 나타내는 언어이고, 희망적인 미래 또 변형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급진적인 기대감이다." 트랜스페미니즘과 퀴어 정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계(치유의 말들, 생명을 살리는 이미지들)에 형태를 부여하는 장소들이다.

산호세, 2016년 7월

1.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런던: 플루토 프레스, 1968.
2. 마이클 워너, 『그 당시 퀴어?』,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 2012년 1월 1일.

Radical Anticipation

Julia Bryan-Wilson

June 12, 2016: Forty-nine queers, most of them Latino/a, were gunned down at a gay nightclub in Orlando, Florida. Instead of inspiring grief and compassion, the incident is being used to stoke Islamophobia and tighten the clutches of gun fanatics around their semiautomatic weapons. It was the worst mass shooting in US history but only the latest in an increasingly grim timeline of other massacres like it, including the white supremacist killing of nine worshipers at an African-American church in Charleston, South Carolina in 2015 and the shooting of twent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Newtown, Connecticut in 2012. In these days of despairing aftermath and the rise of publically sanctioned endorsements of fascism, it feels harder and harder to imagine the ends of capitalism, homophobia, patriarchy, racism, and militarism. Meaningful alternatives to violent structures of intolerance and oppression seem distant, if not impossible, in this numbed new normal.

Yet, as Angela Y. Davis articulates, feminist abolitionist theo-

급진적 기대

줄리아 브라이언-윌슨

2016년 6월 12일,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게이 클럽에서 49명의 동성애자들, 그 중 라틴계 남녀가 대부분이었던 클러버들이 총기 난사로 사망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슬픔과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이슬람혐오/공포에 불을 붙이고, 광적인 총기 소지 지지자들이 반자동 무기를 둘러싸고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2015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9명의 신도를 살해한 사건, 2012년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서 20명의 초등학생이 살해된 사건 이후 점점 더 암울해지는 대학살 사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규모 총기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후유증의 나날들, 파시즘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동성애혐오/공포, 가부장제, 인종차별주의, 군국주의의 종식을 생각하기는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무감각한 신 정상성(new normal)이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편협함, 억압이라는 폭력적 구조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꽤나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페미니즘과 폐지주의 이론에서 안젤라 Y. 데이비스는 “우리는

ries insist that “we have to learn how to think and act and struggle against that which is ideologically constituted as ‘normal.’”¹ Davis reminds us that it is critical to keep envisioning, and actively fighting for, the dismantlement of normative systems of all kinds, especially those naturalized as “common sense” or “logical” like prisons, or capitalism, or indeed the two-gender binary itself. The resigned assumption that the world will always be this way, exactly this way, or much worse— how could it be anything else?—that is the very fear and passivity that the hate-mongers bank on. If we cannot picture, even hazily, any possibilities beyond or outside of these structures, it will be all the more difficult to agitate for lasting collective change.

So we must practice acts of radical anticipation as a form of political summoning-into-being. Feminisms, in particular woman of color feminism as it theorized the co-articulation of race, gender, class, and sexuality, have been some of the most potent critical methodologies for re-imagining life otherwise. Let’s together anticipate the dissolution of gender as we know it, especially the poisonously rigid strictures of dominant notions of “man” and “woman;” let’s anticipate the implosion of homophobia and transphobia that accompanies the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상’이라고 구축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그에 맞서 어떻게 행동하고 투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¹ 데이비스는 모든 정상적인 시스템, 특히 감옥이나 자본주의 혹은 두 개의 젠더라는 이분법처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자연화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세상은 늘 이런 식이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는 체념적 가정(다른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이야말로 증오 확산자들이 의지하는 바로 그 공포와 수동성이다. 이러한 구조를 뛰어 넘는, 그 바깥의 가능성을 흐릿하게나마 상상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집단적 변화를 주장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급진적 기대를 정치적 소환-존재의 형태로 실천해야 한다. 페미니즘(들), 특히 유색인종의 페미니즘의 경우, 인종, 젠더, 계층,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함께 명시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삶을 다른 방식으로 재상상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비판적 방법론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젠더, 특히 유해할 정도로 경직된 지배 개념인 남녀의 구분이 사라지고 융해되는 것을 기대해보자. 이러한 카테고리를 엄격하게 실행하는 동성애혐오/공포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파열되는 것을 기대해보자. 경제적 착취로 인한 생태적 황폐화를 종식시키면서, 인간이라는 바로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변형되고, 또 비-인간 및 지구에 대한 배려의

strict policing of these categories. Let's anticipate transformations in our understanding of the very notion of the human, and extend acts of care for non-humans and our planet as we move to end the ecological ravages of economic exploitation. Let's anticipate the obliteration of the US militarized police state, one that murders and incarcerates black and brown folks with impunity. Let's anticipate revolutions against current injustices around disability and age around the globe, and redefine what mobility, affinity, and solidarity for and across every type of body can look like.

Los Angeles based, Korean-American artist Jennifer Moon, who walks a razors-edge between satire and sincerity, often conjures speculative realms as part of her larger stated project of catalyzing simultaneous personal and political revolution. In *Proposal for my Last Performance on Earth, Prospective Date: 2053* (2014), she set a tiny mountainous landscape inside a giant fiberglass egg. [Fig. 1] On the precipice of a small rocky cliff stand miniature versions of the artist and her dog, affixed with wings, as if ready to ascend into the glittering night sky. [Fig. 2] She is part action hero, part melancholy crusader, on the verge of either saving the world or leaving it alto-

행위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해보자. 유색 인종을 맘대로 살해하고 투옥하는 군사화된 경찰 국가 미국의 소멸을 기대해보자.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장애와 연령에 대한 불평등을 변혁시키고, 어떠한 신체 유형에도 모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동성, 친밀감, 연대가 재정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보자.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 작가 제니퍼 문은 풍자와 진정성 사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면서 개인적, 정치적 혁명의 촉발이라는 보다 큰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사유의 영역을 불러들이곤 한다. <지구에서의 마지막 퍼포먼스를 위한 제안, 예정 연도: 2053년>(2014)에서 작가는 섬유투로 만든 거대한 알 내부에 아주 작은 산악 풍경을 만들어 넣었다.[도판 1] 작은 바위산 벼랑 끝에는 미니어처 버전으로 만든 작가 자신과 자신의 개 형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들은 마치 반짝이는 밤하늘로 날아오를 태세다.[도판 2] 작가는 액션 히어로이자 멜랑콜리한 십자군으로, 곧 지구를 구하거나 (혹은 동시에) 지구를 떠날 순간에 놓여 있다. (2053년은 작가가 80세가 되는 해이다.) <지구에서의 마지막 퍼포먼스를 위한 제안, 예정 연도: 2053년>에서 제니퍼 문은 자신의 삶과 작업의 환상적인 정점을 시각화하면서 그 안에 키치적인 인물과 뉴에이지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끔찍한 뉴스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현재 이 모든 긍정적인 단언은 바보 같고 경솔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또한 사회의 부정적인 면과 디스토피아적인

gether (2053 is the date the artist will turn 80 years old). Moon's *Proposal for my Last Performance on Earth, Prospective Date: 2053* brings together kitsch figurines and New Age philosophies in her visualized anticipation of the fantastical culmination of her life and her artwork.

But maybe this all affirmation sounds absurd, or frivolous, in the wake of so much horrible news. Let's also not lose sight of the importance of social negativity and the potential of dystopian visions as diagnostic tools. Wu Tsang's immersive two-channel video *A Day in the Life of Bliss* (2014), presents an image of a futuristic society controlled by surveilla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ver the course of its twenty minutes, including riveting dance sequences by its main protagonist, played by the performer boychild, it depicts a police raid at an underground genderqueer club in which patrons are physically incapacitated by electric Tasers. [Fig. 3] After Orlando, that club scene is even harder to watch: acts of anticipation can also be tinged with dread, or bleak prophecy.

In the service of marshaling precisely such dread, the evangelical right-wing minister Pat Robertson said in 1992, "the feminist agenda is not about equal rights for women. It is about a socialist, anti-family

비전의 가능성이 진단의 도구로 중요하다는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 생의 몰입형 2-채널 비디오 작품 <행복이 넘치는 인생의 하루>(2014)은 감시 사회,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는 미래 사회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퍼포머 보이차일드가 주인공을 맡아 보여주는 인상적인 댄스 시퀀스를 포함하여 총 20분 간의 상영 시간 동안 작품에서는 경찰이 지하 쿼어 클럽을 습격하고 패트론들이 테이저 총(전기 충격을 가하는 무기)에 맞아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장면이 묘사된다.[도판 3] 올랜도 사건 이후로 이 클럽 장면을 보는 것은 더 힘든 일이 되었다. 기대감에 찬 행동은 끔찍하고 암울한 예견과 중첩되기도 한다.

정확히 이렇게 끔찍한 것들을 통제하는 체제 내에서, 1992년 복음주의 기독교도 우익 목사인 팻 로버트슨은 "페미니스트가 다루는 사안은 여성의 평등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이고 반-가정적인 정치운동으로, 여성들을 부추겨 남편을 떠나고 아이들을 죽이고 마법을 부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레즈비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팻은, 사회주의, 그리고 가정의 인습을 무너뜨리는 쿼어의 잠재성을 포함하여 페미니즘 비평에 기대하는 두드러지는 면들을 기이하게도 많이 짚어냈다. 그러나 아이들의 죽음은 페미니스트 어머니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팻 자신과 여타 반-페미니스트들이 퍼뜨린 남성성의 파괴적 코드에 사로잡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성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political movement that encourages women to leave their husbands, kill their children, practice witchcraft, destroy capitalism, and become lesbians.” Pat, you have uncannily managed to touch upon many of the salient features of an anticipatory feminist critique, including its socialism and its queer potential to smash conventions of the family. However, while children are indeed being killed, it is not by their feminist mothers, but by disturbed men in the grip of the destructive codes of masculinity that you and other anti-feminists help promulgate.

Who is safe in this raw, angry world? Given the repressive regimes that accompany the rhetoric of safety, is security even an operative term? As Davis writes, “Perhaps transformative justice provides a framework for imagining a very different kind of security in the future.”² She goes on to say, “I don’t think we have any alternative other than remaining optimistic,” keeping alive the necessity of radical anticipation, even if it has never felt more challenging, or more unbearably futile.³

1. Angela Y. Davis, *Freedom is a Constant Struggle: Ferguson, Palestine, and the Foundations of a Movement* (Chicago: Haymarket Books, 2016), 100. / 2. Ibid., 48. / 3. Ibid., 49.

이 속살이 드러난 분노의 세계에서 과연 누가 안전한가? 억압적 체제가 안전의 수사학을 동반하는 점을 볼 때 보안은 심지어 그 체제를 움직이는 작동의 용어이지 않은가? 데이비스는 “변형적 정의(正義)는 미래 사회에 매우 다른 종류의 안전을 상상하는 데 하나의 틀을 제시한다”고 말한다.²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어느 때보다 버겁고 참기 어려울 정도로 헛된 기분이 들지라도 급진적인 기대의 유용함과 그 가치를 살려두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역설한다.³

1. 안젤라 Y. 데이비스, 『자유는 끝없는 투쟁: 퍼거슨, 팔레스타인, 그리고 운동의 기반들』, 시카고: 헤이마켓북스, 2016, 100쪽. / 2. 앞의 책, 48쪽. / 3. 앞의 책, 49쪽.



1



2



3

Fig.1 Jennifer Moon, *Proposal for my Last Performance on Earth, Prospective Date: 2053* (from *Phoenix Rising, Part 2: Eros vs. Agape*), 2014. Made in L.A. 2014, Hammer Museum, Los Angeles.

Photo: Heather Rasmussen.

Fig.2 Detail of Moon, *Proposal for my Last Performance on Earth, Prospective Date: 2053* (from *Phoenix Rising, Part 2: Eros vs. Agape*)

Fig.3 Wu Tsang, *A Day in the Life of Bliss*, 2014, 2-channel color HD video, 20 min., Courtesy the artist and Galerie Isabella Bortolozzi, Berlin

도판1 제니퍼 문, <지구에서의 마지막 퍼포먼스를 위한 제안, 예정 연도: 2053년>, 2014. 로스앤젤레스 해머미술관, 사진: 헤더 라스무센

도판2 제니퍼 문, <지구에서의 마지막 퍼포먼스를 위한 제안, 예정 연도: 2053년> 세부

도판3 우 생, <행복이 넘치는 인생의 하루>, 2-채널 컬러 HD 비디오, 20분, 작가 및 베를린 이사벨라 보르톨로지 갤러리 제공

Árbol de Manos
[Tree of hands]

Cecilia Vicuña

1974, Collage on paper, 30.5 x 23 cm, Courtesy
of the artist, Private collection

손의 나무

세실리아 비꾸냐

1974, 종이에 콜라주, 30.5 x 23 cm, 작가 제공, 개인 소장



Another Summer of Love

Övül Ö. Durmuşoğlu

*The world needs togetherness, not separation. Love, not suspicion.
A common future, not isolation.*

— Etel Adnan for Hans Ulrich Obrist's Instagram

It is a summer not to be forgotten. The longest day and shortest night of 2016 is crowned by a full moon, named as strawberry moon. A special astronomical coincidence that doesn't happen regularly. The last solstice crowned with a full moon happened in 1967 during the "Summer of Love." It was a summer of mental and sexual liberation; a heterotopia of music, poetry, sex and drugs. Against the growing patriarchal hegemony, a generation wanted to "drop out" to discover who they were through peace and love; around 100,000 people came to San Francisco's Haight and Ashbury to "find" revolution. "Summer of Love" ended dramatically by October 1967. It lasted short but it changed what came afterwards. The desire to "whole" with the earth, inner healing technologies, ancestral thinking practices, techno-drug

또 다른 사랑의 여름

외톨 두르무조글루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의심이 아니라 사랑, 고립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다.

—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인스타그램에 남긴 에텔 에드난의 글

잊을 수 없는 여름이다. 2016년의 하지에는 스트로베리 문이라 불리는 보름달이 떴다. 이것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 매우 특별한 천문학적 만남이다. 이전에 마지막으로 하지에 보름달이 뜬 것은 1967년 '사랑의 여름'이었다. 그것은 정신적 해방과 섹슈얼 해방의 여름, 즉 음악과 시, 섹스와 드럭이 공존하는 헤트로토피아다. 당시 세대는 점차 강해지는 가부장적인 헤게모니에 맞서 (인습에서) '떨어져 나와' 사랑과 평화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 발견해갔다. 십만여 명의 사람들이 혁명을 '찾아' 샌프란시스코 헤이트 애슈베리로 모여들었고, 1967년 10월 '사랑의 여름'은 극적으로 막을 내렸다. 짧았지만 이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여름이었다. 지구와 '(하나의) 전체를 이루려는' 욕망, 힐링의 기술, 원형적 사고의 실천, 테크노-드럭 문화 등은 1967년 여름이 우리 세대에게 남긴 유산으로 여겨진다.

culture may be considered part of 1967 summer's heritage for our generation.

This solstice full moon instead is marked by the largest massive shooting in a gay club called Pulse in the Orlando district of Florida. The immediate IS connection flagged in media rose many questions. At first the system didn't want to take the blame and wanted to put it all on Islamic fascism. For some it didn't matter that 49 people who died were part of the LGBTI community and the reason they were killed was homophobia. The truth is bare. Few people apart from the community see the causality between different acts of "normalised" homophobia and an extreme version such as Orlando. Despite 49 people and many others who died in similar mass shootings before, it is still impossible for the American Congress to take the decision to control public purchase of lethal guns. At the same time in Turkey, Istanbul Pride—which is the largest happening in Balkan and Middle Eastern region with over 50,000 attendants—is under the threat of the current totalitarian government. The Trans Pride that marks the beginning of Pride Week in Istanbul was already attacked by the police this year. In metropolises like New York and London, the Pride is

그러나 이번 보름달이 뜬 하지는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위치한 펄스라는 게이 클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억된다.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IS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많은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사회 시스템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이슬람 파시즘 탓으로 돌리려 했다. 49명의 사망자들이 LGBTI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동성애혐오/공포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진실은 자명하다. '정상화된'(normalised) 동성애혐오/공포와 올랜도 사건 같은 극단적 형태의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동성애 커뮤니티를 제외하고 거의 인식하는 이가 없다. 이번 사망한 49명과 유사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미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미국 의회는 여전히 일반인들의 살상용 총기 구매 통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기 터키에서는 이스탄불 프라이드(발칸과 중동 지역에서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해프닝)가 전체주의적인 현 정부에 의해 탄압받았다. 이스탄불 프라이드 주간의 시작을 알린 트랜스 프라이드는 이미 올해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의 프라이드 운동은 정치적인 내용이 다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일어난 LGBTI 행동주의는 처음부터 더 많은 다양성을 안고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투쟁은 젠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주의, 계층 문제, 군국주의 같은 사안들을 계속해서 비판해왔다. 그래서 날바

stripped of its political content. However, the LGBTI activism in Turkey has to be more versatile from the beginning. The struggle doesn't stop with gender but continues to criticize issues of nationalism, class and militarism as well.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pigeonhole the production of young generation artists from Turkey like Nilbar Güreş and Erinc Seymen only as queer.

Nilbar Güreş' *Double Goddess: Sketch of an Encounter* (2013) departs from a two headed goddess figurine excavated in the center of Anatolian peninsula, from a neolithic site called Çatalhöyük. Despite contradicting scientific evidence, Çatalhöyük is still considered by some as a cultic center of the matriarchal myth. The double headed goddess figurine is one of the important items of the Anatolian Civilization Museum's collection in Ankara. Such figurines had been part of ongoing life while they can only exist behind the glass vitrines in a museum today. Double head in one female body can be read as a belonging of women loving each other and of women in solidarity with each other. A way of thinking that blurs the binaries dominating our lives. It is not possible to see this figurine detached from the current struggles that attempt to transgress the binary of body and gender.

귀레쉬, 에린크 세이멘 같은 터키 출신의 젊은 세대 미술가들의 작업을 퀴어 미술로만 분류하기는 어렵다.

닐바 귀레쉬의 <이중 여신: 마주침에 관한 스케치>(2013)는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 지역에 있는 차탈회위크라는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굴된 머리가 두 개 달린 여신상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과학적인 반론의 증거가 나왔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차탈회위크를 컬트적인 모계사회 신화의 중심지로 여긴다. 쌍두 여신상은 앙카라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의 중요한 컬렉션이다. 이러한 신상들은 현재 미술관의 진열장에 갇혀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는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했다. 여성의 몸 하나에 달린 두 개의 머리는 서로 사랑하는 여성들, 연대를 이룬 여성들의 친밀감으로 해석된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분법의 경계를 흐리는 하나의 사고 방식이다. 이 신상을 몸과 젠더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현재의 투쟁과 분리해서 바라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쌍두 여신상은 오토만 제국과 터키라는 특정 지역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또 다른 대안적 계보학에 영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것은 곧 일어날 '미래의 퀴어'를 이끌어 갈 현재의 경험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미래의 퀴어'에 대한 이해는, 최근의 아카이브와 기록물로 만들어진 베를린 슈블레스 박물관(LGBT 박물관) 같은 예를 만들어내며 미술관학의 정신적 근거를 흔드는 한편,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서는 선대의 원형적인 것과 퀴어를 더욱 단단하게

To put it in another way, the double headed goddess inspires a different genealogy for the otherness in the particular geography of Ottoman Empire and Turkey. It is already embedded in the contemporary experience that may lead to a "future queer" that is about to happen. While an understanding of "future queer" shakes the ground of museological mind that can produce an example like Schwules Museum in Berlin that is made of archives and documents from recent times, it strengthens another bridge between the queer and the ancestral beyond the time that we are able to document and archive.

When asked to bring a personal object to be integrated to the *Future Queer* exhibition, Seda and Tuna two artist-academics who started Istanbul Queer Art Collective brought the mirror in their house. It used to be Seda's grandmother's. We placed it in the staircase of the villa that hosted the exhibition; it made whoever passed by self-conscious, seeing their reflections in the continuum of the *Future Queer*. The particular mirror embodies the reflections and memories of many queer figures in Istanbul, especially getting dressed for the Pride walk. While multiple subjects left their traces on it, they activated the mirror as a portal for transient intersubjectivity. It showed

이어준다.

이스탄불 퀴어 아트 컬렉티브를 처음 시작한 두 명의 작가 겸 학자인 세다와 투나는 <미래의 퀴어> 전시에 결합될 수 있는 개인적인 물건을 출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자신들의 집에 있는 거울을 가져왔다. 그것은 세다의 할머니께서 사용하시던 것이었다. 우리는 그 거울을 전시가 열리는 빌라의 계단에 놓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의식하면서 <미래의 퀴어> 전시의 흐름 속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다. 바로 이 거울은 이스탄불의 수많은 퀴어들, 특히 프라이드 워크에 의상을 차려 입고 참여 했던 이들을 반영한 이미지와 그들에 관한 기억을 구성한다. 여러 주체들은 여기에 흔적을 남기면서 거울을 일시적인 상호주체성으로 진입하는 입구로 활성화시켰다. 이것은 또 다른 가능성, 즉 살아 있는 존재들 및 이 공간에서 기억들을 뒤로 하고 저 세상으로 떠난 존재들과의 자유로운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마치 신석기 시대에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쌍두 여신상과 다르지 않다. 거울의 한 쪽 모서리에는 2015년, 31세의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LGBTI 행동주의자로서,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곤 하던 보이산 야카르의 작은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미래의 퀴어>는 터키 최초의 LGBTI 권리 조직 카오스 GL(Kaos GL)이 처음으로 작은 집에서 회의를 열고 동명의 매거진을 발간하면서 시작된 풀뿌리 행동주의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시작된 결과물이다. 이것은

another possibility of an unbound conversation with living beings and beings who left their memories behind when they passed away in the same space. Like the double goddess figurine which was part of the daily life in the Neolithic times. In the corner of the mirror was a small photo of a very young Boysan Yakar who used to pose in front of the mirror, the brilliant LGBTI activist passed away in a car accident in 2015 when he was 31. *Future Queer* was the outcome of the process initiated by Kaos GL, the first LGBTI rights organization in Turkey to think about its 20 years of grassroots activism that started with small house meetings and pamphlet magazine of the same name. It pointed out to the queer as a tense that passes beyond the gender binary, a place that is not covered by 4G phone operators, a desire which we have not accomplished yet. It has all started with installing a mirror which not only reflects but also refracts.

Now is another summer of love, where the universe asks us to reconsider what it means to love. The ocean which future queer is part of proposes us a vast timeless surface of reflection, refraction and transformation while hatred means turning our back to this possibility. Turning back cannot be an option anymore. Sail away, we must!

퀴어를 이분법적인 젠더를 뛰어 넘는 긴장, 4G 모바일 폰 운영자들이 커버할 수 없는 장소, 우리가 아직 이뤄보지 못한 욕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이미지를 반영하기도 하고 굴절시키기도 하는 거울을 설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주가 우리에게 다시 물음을 던지는 또 다른 사랑의 여름이다. 증오는 이러한 가능성에 등을 돌리는 것이지만, 미래의 퀴어가 한 부분을 형성하는 바다는 시간을 초월한 드넓은 반사와 굴절과 변형의 표면을 제시한다. 등을 돌리는 것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



1



2



3

Fig.1 Nilbar Güreş, *Double Goddess: The Sketch of Encounter*, 2012, Mixed media on fabric, 152 x 238 cm, Photo: Nathalie Barki, Courtesy of the artist and Rampa Istanbul

Fig.2 Self-portrait with mirror at *Future Queer* exhibition, Istanbul, January 2016 Photo: Berge Arabian

Fig.3 Rainbow at Weissensee, Berlin, June 2016 Photo: Övül Ö. Durmuşoğlu

도판1 nil바 귀레쉬, <이중 여신: 마주침에 관한 스케치>, 2012, 천에 혼합 매체, 152 x 238 cm, 사진: 나탈리 바키, 작가 및 람파 이스탄불 갤러리 제공

도판2 <미래의 퀴어> 전시에서 거울에 비친 필자의 모습, 이스탄불, 2016년 1월 사진: 베르제 아라비안

도판3 베를린 바이센제에 뜬 무지개, 2016년 6월 사진: 외불 두르무조글루

Queer Futures

Carlos Motta

퀴어의 미래들

카를로스 모타



Queerness is an unstoppable force powered by dreams of survival. *Queer* is a language of freedom from systemic oppression. *Queer lives* hardened by violence: familial prejudice, bullying at school and work, exhaustively discriminatory institutions. Yet we carve spaces to cope and thrive. We build dissenting forms of living. We construct futures that resist the suffocating norms of the mainstream.

‘퀴어성’(Queerness)이란 생존을 향한 꿈으로 움직이는, 멈출 수 없는 힘이다. ‘퀴어’는 전체적인 억압에서 나온 자유의 언어이다. ‘퀴어의 삶(들)’은 가족 중심적인 편견, 학교와 직장에서의 괴롭힘, 지치도록 차별적인 제도와 같은 폭력에 의해 경직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추구하는 것에 부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의견을 달리하는 삶의 형태를 만든다. 주류 문화라고 하는 숨막히는 표준에 저항하는 미래(들)를 구축해간다.



But violence is often stronger than dreams. Ideologies of hate that kill bodies, hopes, bonds of friendship... A *pulse* interrupted by compulsory hetero values of rage. Today, in Orlando, Florida brown bodies and queer lives were ended, forever.

A rampant man with visions of exclusion made us disappear into remembrance. An archaic power that defeated bodies but failed to transcend drafting them alive into the future.

그러나 폭력은 종종 꿈보다 강하다. 몸과 희망, 우애의 연대를 죽여버리는 증오의 이데올로기... 강압적인 이성애적 분노의 가치들이 방해하는 ‘맥박’. 오늘,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흑인의 몸과 퀴어의 생명은 영원히 끝이 났다.

배제의 비전으로 가득한, 통제불능의 한 인간이 우리를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신체는 물리쳤지만 그 몸들이 미래에 살아나게 만드는 힘을 초월하지 못하는 원시적인 권력이다.



As if the permanent state of masculinist rejection wasn't *enough*, death rules. Fifty precious lives taken at once. More lives taken daily in street corners, bathroom stalls, alleys, passage ways, everywhere.

마치 영원한 남성우월주의적인 거부만으로는 부족했다는 듯, 죽음이 지배한다. 50명의 소중한 생명을 한 번에 앗아갔다. 이보다 더 많은 생명이 길거리, 화장실, 골목길, 통로 등 모든 곳에서 매일 죽어간다.



But our collective dreams endure. *Queerness* is a political force powered by anger. *Queer* will not be silent and will dream until power is defeated, until silence, echoing Audre Lorde's words, is transformed into language and action.

그러나 우리의 집단적 꿈은 계속된다. '퀴어성'은 분노로 일어나는 정치적 힘이다. '퀴어'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권력이 패하고, 오드리 로드의 말처럼, 침묵이 언어와 행동으로 변할 때까지 꿈 꿀 것이다.



Hermaphrodite struggling with a satyr (6) from *Beloved Martina*, 2016, Sandstone 3D Print, 25.4 x 20.3 x 15.7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or Charpentier Galerie, Paris

Hermaphroditus biceps (7) from *Beloved Martina*, 2016, Sandstone 3D Print, 15.2 x 25.4 x 7.4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or Charpentier Galerie, Paris

Sleeping Hermaphroditus (2) from *Beloved Martina*, 2016, Sandstone 3D Print, 25.4 x 7.1 x 13.2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or Charpentier Galerie, Paris

Hermaphrodite (10) from *Beloved Martina*, 2016, Sandstone 3D Print, 10.9 x 25.4 x 7.9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or Charpentier Galerie, Paris

Hermaphrodite (8) from *Beloved Martina*, 2016, Sandstone 3D Print, 18.5 x 25.4 x 13.7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Mor Charpentier Galerie, Paris

<사티로스과 싸우는 헤르마프로디테(6) 사랑스런 마르티나>, 2016, 샌드스톤 3D 프린트, 25.4 x 20.3 x 15.7 cm, 작가 및 파리 모어 샤프팡티에 갤러리 제공

<헤르마프로디토스의 이두근(7) 사랑스런 마르티나>, 2016, 샌드스톤 3D 프린트, 15.2 x 25.4 x 7.4 cm, 작가 및 파리 모어 샤프팡티에 갤러리 제공

<잠 자는 헤르마프로디토스(2) 사랑스런 마르티나>, 2016, 샌드스톤 3D 프린트, 25.4 x 7.1 x 13.2 cm, 작가 및 파리 모어 샤프팡티에 갤러리 제공

<헤르마프로디테(10) 사랑스런 마르티나>, 2016, 샌드스톤 3D 프린트, 10.9 x 25.4 x 7.9 cm, 작가 및 파리 모어 샤프팡티에 갤러리 제공

<헤르마프로디테(8) 사랑스런 마르티나>, 2016, 샌드스톤 3D 프린트, 18.5 x 25.4 x 13.7 cm, 작가 및 파리 모어 샤프팡티에 갤러리 제공

Queerness is anger as *pulse*
is politics as endurance
is language as freedom
is the radical anticipation of a future that
is both hopeful and transformative
is hard as shield
is fate in our dream

‘퀴어성’은 ‘맥박’으로 표현되는 분노이고
인내를 의미하는 정치이며
자유를 나타내는 언어이다.
그것은 희망적이고 변형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급진적인 기대이다.
방패처럼 강하며
우리가 꿈꾸는 운명이다.

Sementerio No. 8
[Sementery No.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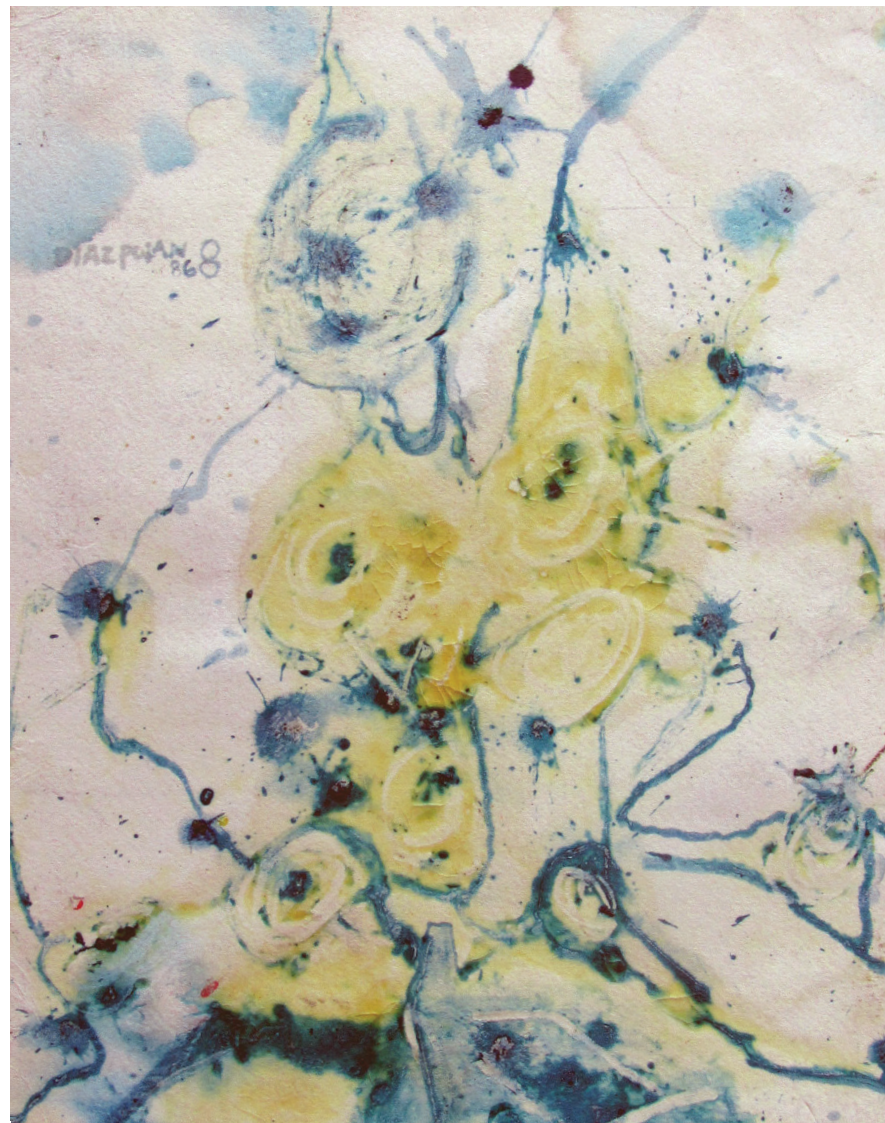
Wilson Díaz

1986, Semen and ink on cardboard, 14.4 x 11.7 cm,
Courtesy of the artist, Private collection

세멘테리오 8

윌슨 디아즈

1986, 종이에 정액과 잉크, 14.4 x 11.7 cm, 작가 제공,
개인 소장



Sementerio No. 6
[Sementery No. 6]

Wilson Díaz

1986, Semen and ink on cardboard, 19.1 x 13.5 cm,
Courtesy of the artist, Private collection

세멘테리오 6

윌슨 디아즈

1986, 종이에 정액과 잉크, 19.1 x 13.5 cm, 작가 제공,
개인 소장



TRANSgressing the Framing of Feminism

Jabulani Chen Pereira

Frameworks and constructions of identities based on collective ideologies have shifted over the past years as Trans* bodies and Non-binary identities have shifted the notion of feminism as a something constructed by and for cisgender women.

Non-binary identities intentionally and subversively challenge the idea that one ought to choose a gender or that one should be aligned to a gender in order to express oneself. Non-binary identities refuse the path of pathology, meaning that one must medically be diagnosed and be in some space of transition in order to conform and belong. In this work Tiwonge Chimbalanga a refugee in South Africa was sentenced to 14 years in prison in Malawi. Her crime, identifying as a female and desiring to marry her partner. Even the judiciary could not understand this and compelled the trial to take place under the penal code charged under sodomy laws. The judicial and the state imposed a gay male identity upon her and violated her rights.

페미니즘의 틀을 가로지르기(TRANSgressing)

자불라니 첸 페레이라

지난 몇 년간 페미니즘의 개념이 트랜스* 몸과 비이분법적 정체성에서 시스젠더(신체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는 사람들)여성들에 의해 그들을 위한 개념으로 변환되면서, 집단적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정체성의 틀과 구축 양상이 변화했다.

비이분법적인 정체성(들)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젠더를 선택해야 하고 그 젠더에 부합해야 한다는 개념에 의도적으로 또 전복적으로 도전한다. 비이분법적인 정체성(들)은 기존 시스템을 따르거나 그 안에 속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 어떤 전환의 공간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병리학적 경로를 거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난민인 티윙게 침발랑가는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말리위에서 14년 형을 받았다. 그녀가 받은 죄목은 여성으로서 (동성)파트너와 결혼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사법부에서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재판을 소도미 법(동성에 금지법)에 속하는 형법 사건으로 넘겼다. 사법부와 국가는 그녀에게 남성 게이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녀의 권리를 침해했다. 법이 젠더 코드화 되어 그것이 다시 트랜스젠더와 비이분법적인 몸들에 폭력의

Laws become gender codes which in turn become instruments of violence imposed on Trans and Non-binary bodies. Non-binary bodies reject the notion that genitalia, sex and gender are one but rather that bodily organs are functional parts of a body that requires no diagnosis and no alignment to any one gender.

These bodies exist in countries where transgender health and access to care is illegal, and hence the very idea of choice is eroded and replaced by systemic violence. It is a form of violence that enforces conformity and marginalisation. There is no joyful fantasy that Non-binary identities are privileged middle class forms of gender expression led by fashion models. Non-binary gender expression in African countries is subversive and dangerous.

To navigate public space in a body that does not fully conform to male or female evokes hatred and violence in societies fuelled by religious and cultural fundamentalisms as seen in Uganda, where 99% of the population is homophobic.

Feminism has had to shift from its binary cis privileged space and become more inclusive of Trans* and Non-binary bodies. Language shifts are taking place in ways that permits inclusion.

장치로 작용하는 것이다. 비이분법적인 몸들은 성기, 섹스, 젠더가 하나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신체적 기관들은 진단할 필요도 없으며 어느 하나의 젠더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는 몸의 기능적인 부분들인 것으로 여긴다.

이런 몸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건강 및 의료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법화된 국가들에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선택이라는 생각 자체가 무너지고 전체적인 폭력으로 대체된다. 이것은 사회적 순응과 외부화/소외를 강화시키는 폭력의 형태이다. 비이분법적인 정체성이 마치 패션 모델들이 주도하는 특권화된 중산층의 젠더 표현 형태라는 유쾌한 판타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비이분법적인 젠더의 표현은 전복적이고 위험한 일이다. 분명하게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지 않은 몸으로 공공 공간을 돌아다니면 사회에서 종교적, 문화적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증오와 폭력을 야기하게 된다. 인구의 99%가 동성애 혐오/공포를 가진 우간다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페미니즘은 이분법적인 시스의 특권화된 공간에서 나와 트랜스*와 비이분법적인 몸들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어적으로, 포함을 허용하는 방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을 단수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비이분법적인 개입/삽입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들’을 단수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이 문법적인 오류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저술가들은 자신들이

The acceptance of “they” as a singular pronoun is one example in which Non-binary insertion is being accepted as a norm. Feminists writers who argue that it is grammatical incorrect to use “they” have merely perpetuated that idea that they are not ready or able to accept shifts in ending the binary.

While Transgender bodies are still classified as a Gender Identity Disorder (GID) under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0), any act of so-called cross dressing, desires to express one’s gender outside of a binary remains codified as a medical disorder that needs fixing. Is there every a fulfilling feeling that leads to what it means to be fully male or fully female? This seems unattainable and simply unnecessary.

아직 이분법이 종결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생각만을 반복해서 보여줘 왔다.

트랜스젠더의 몸(들)은 아직도 국제질병분류법에 따라 성동일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복장 도착이라는 크로스 드레싱이나 이분법을 벗어난 젠더로 표현하려는 욕망은 교정이 필요한 의학적 질병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완전한 남성화 혹은 완전한 여성화로 이끄는 완전한 만족감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간단히 말해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Virgin of the Guacas

Alejandro Gómez de Tuddo / Giuseppe Campuzano

In this photograph Peruvian transgender philosopher and activist Giuseppe Campuzano appears crossdressed as an indigenous Andean Virgin priestess. During Colonial Spanish America women who led indigenous worship were called “witches” and processed through idolatry trials. “Guaca” means indigenous tomb.

Alejandro Gómez de Tuddo, *Virgin of the Guacas*, from the series *Transcapes*, 2007, Digital print on paper, 50 x 138 cm, Courtesy of the artist

구아카스의 여사제상

알레한드로 고메스 데 투도 / 귀세페 캄푸자노

이 사진에서 페루의 트랜스젠더 철학자이자 활동가인 귀세페 캄푸자노는 안데스 문명의 성모-여사제의 트랜스 복장으로 분했다. 스페인 식민기에 ‘마녀’로 불리던 아메리카 대륙의 여성들은 토착 종교 의식을 주도하며 우상숭배적인 의례를 진행했다. ‘구아카’는 토착민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레한드로 고메스 데 투도, <트랜스케이프> 연작 중 <구아카스의 여사제상> 2007, 종이에 디지털 프린트, 50 x 138 cm, 작가 제공

Deep in the Wound: The Blood of Sexuality

Lawrence La Fountain-Stokes

To be queer and Puerto Rican in the United States is strange and at times profoundly dangerous. Strange, because many people do not understand who we are. Dangerous, because we are at risk of multiple prejudices and aggressions, whether they are racism, homophobia, lesbophobia, transphobia, or a combination of the above, not to mention the dangers that all persons are subjected to in this country because of the prevalence of weapons, the profound social inequalities, the lack of comprehensive mental health care (and in some cases, basic health care), and the rise in xenophobic, ultranationalist and extremist discourses and actions, as the recent Orlando massacre and the incendiary rhetoric of Donald Trump's presidential campaign remind us. And invisible, considering the ways many news outlets and individuals minimize the Latina/o specificity of our experience.

Many Puerto Ricans in the archipelago of Puerto Rico and many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slow to acknowledge and

깊은 상처: 섹슈얼리티의 피

로렌스 라 폰테인-스토크스

미국 사회에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퀴어로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본질적인 위협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상하고, 여러 가지 편견과 공격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에 위험하다. 그것은 최근 올랜도 학살 사건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쏟아내는 자극적인 수사를 통해 연상해볼 수 있듯이, 도처에 산재한 무기들, 근본적인 사회적 불평등, 포괄적인 정신 건강 케어(경우에 따라 기본 건강 케어)의 부족, 점차 커가는 외국인 혐오주의적이고 초국수주의적이고 극단주의적인 담론과 행동들로 인해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인종차별주의, 동성애 혐오/공포, 레즈비언 혐오/공포 혹은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그런 편견과 공격성이다. 그리고 라틴계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특정 부분들을 수많은 뉴스 미디어와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다루고 인지해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존재의) 비가시화에 다름 아니다.

푸에르토리코 군도에 사는 푸에르토리코인들과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중 수많은 이들이 퀴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매우 느린 반응을 보여왔다. 보다

accept queer persons, or more specifically, to allow queer-identified ones to live openly and embrace their identities publicly, as a political act, demanding full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recognition. It has always been preferable to do things in silence or in secrecy, while allowing comedians, politicians, religious clergy and others to make fun of, ridicule, or condemn our experiences and lives. Many want us to live and pretend that we are just like them. In their minds, everything is alright as long as you follow social conventions that require heterosexuality, marriage and gender compliance, including masculine behavior for men and feminine behavior for women.

More than forty years of lesbian, gay and trans activism and radical cultural productions in Puerto Rico and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elsewhere have had a profound impact, and now things are decidedly better. But better does not mean ideal, particularly in a country (Puerto Rico) that is subjected to colonial rule by the United States since 1898, where the economy has been in a recession for over a decade and the government is banned from declaring bankruptcy by the United States legislature and Supreme Court. It is also a country that has been profoundly affected by

구체적으로 말하면, 퀴어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공개적으로 삶을 영유하게 하고 공공연히 이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의 정치적 행동으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완전한 인식을 요구하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코미디언, 정치인, 종교인 등이 우리의 경험과 삶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우리의 존재는 침묵 상태, 비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늘 더 낫다고 여겨져 왔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들처럼 살거나 그런 척하기를 바란다. 이들은 남성에게 요구되는 남성적인 태도, 여성에게 기대하는 여성적인 태도 등을 포함하여 이성애주의, 결혼, 젠더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전통을 따르기만 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난 40년 동안 푸에르토리코, 미국,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그 밖의 지역에서 일어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행동주의와 급진적 문화 생산 운동은 근본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많은 것들이 결정적으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더 나아졌다는 것이 곧 이상적인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1898년 이후 줄곧 미국령으로 남아 있는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 상황 역시 수십 년간 침체되어 왔는데도, 미국 의회와 대법원에서는 푸에르토리코의 파산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는 HIV/에이즈의 급속한 확산, 마약과 연관된 폭력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사회 계약이 붕괴된 상태다. 20세기 전체에 걸쳐, 그리고 21세기에도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the HIV/AIDS epidemic, by drug violence and by the collapse of the social contract. The constant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rises in Puerto Rico throughout the twentieth and now twenty-first centuries have generated major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facilitated by the fact that Puerto Ricans hold U.S. citizenship since 1917, which means that we can travel freely between the two locations. And millions of Puerto Ricans have left the island, many of them LGBT. Thousands have gone to Orlando, Florida, because of poverty, violence, lack of opportunities, and in some cases homophobia. Currently, Florida (specifically, the Orlando region) has the second largest concentration of Puerto Rican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New York/New Jersey metropolitan area.

Most Americans know little and care even less about Puerto Rico, except that it is a desirable tropical vacation destination and that many athletes, beauty queens, musicians, soldiers and entertainers come from there. When pressed, they might recognize that Ricky Martin is an openly gay Puerto Rican. Most U.S. voters are not interested in the profound and severe impact of current legislation, approving the establishment of a Fiscal Control Board that will

계속되고 있어서 대규모 인구가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1917년에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이것은 두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백만 명의 푸에르토리코인들이 고국을 떠났고 그 중에는 LGBT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들 중 수천 명은 가난, 폭력, 기회의 부재, 때로는 동성애혐오/공포 때문에 플로리다 올랜도로 터전을 옮겼다. 현재 플로리다(구체적으로 올랜도 지역)는 미국 내에서 뉴욕/뉴저지 같은 대도시 다음으로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미국인들이 푸에르토리코에 관해 아는 것은, 가보고 싶은 아열대 휴양지, 운동 선수, 미인대회 수상자, 뮤지션, 군인, 예능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라는 점이 전부이고 이 나라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다. 언론에서 보도가 된 후에야 리키 마틴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커밍아웃한 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 중 대다수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자결권(민족자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재정통제위원회(Fiscal Control Board)의 설립을 승인하는 현 입법부의 본질적이고 가혹한 영향에 관심이 없다. 『가디언』의 스티븐 트레셔린이나 『라티노 리벨스』의 찰리 바스케스 같은 논평자들이 지적한 대로, 미국의 주류 뉴스 매체는 올랜도 펄스 클럽의 사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무시하거나 최소한만 다루어왔다. 2016년 6월 12일, 오마르 마틴에 의해 사망한 49명 가운데

severely constrain Puerto Rican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And as commentators such as Steven Trasher in *The Guardian* and Charlie Vázquez in *Latino Rebels* have observed, many mainstream news sources in the United States have ignored or minimized the specificity of the murder victims at Pulse nightclub in Orlando: the fact that 23 of the 49 persons who were killed on June 12, 2016 by Omar Mateen were Puerto Rican; that 90% of those killed were Latinas/os, mostly LGBT Latinas/os and their relatives and friends; that their faces were black, white, and brown, the children of the African diaspora; that most of them were working class and extremely young; that as Juana María Rodríguez (on *NBC News*), Ramón Rivera-Servera (in an interview with Spencer Kornhaber in *The Atlantic*) and Justin Torres (in *The Washington Post*) remind us, they were at Pulse on Latin night, celebrating the life-affirming practices of music and dance and shared culture among friends.

Many Americans (and perhaps many persons in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also don't seem to care much that all Puerto Ricans are beginning to experience a crisis similar to the ones experienced in Argentina, Brazil, Greece, and Spain and by our brothers and sisters

23명이 푸에르토리코인이라는 사실, 사망자 중 90%가 라틴계, 대부분이 LGBT 라틴계이거나 그들의 친인척 또는 친구였다는 사실, 사망자들이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후예로 검은색, 흰색, 갈색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대다수가 매우 젊은 노동자 계층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후아나 마리아 로드리게스(『NBC 뉴스』에서), 레이몬 리베라-세르베라(『디 아틀랜틱』지, 스펜서 콘하버와의 인터뷰에서), 저스틴 토레스(『워싱턴포스트』지에서)가 상기시키듯, 이들은 라틴의 밤, 펄스 클럽에서 삶을 긍정하는 음악과 춤을 즐기며 친구들과 문화를 나누고 있었다.

많은 미국인들(그리고 아마도 전세계 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은 푸에르토리코가 과거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 스페인이 겪었던(그리고 디트로이트와 플린트 같은 미시건 주 내 도시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겪은) 것과 유사한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마누엘 아빌레스-산티아고가 자신의 저서 『푸에르토리코 군인과 제 2 계층 시민권: 미디어 재현』에서 말하듯, 퀴어 푸에르토리코인, 퀴어 라틴계인들은 (제 2 계층)미국 시민권으로 인해 또 다른, 특정한 컨텍스트에 놓여 있는데, 이들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유색인종처럼, 그리고 다른 이민자들이나 역사적으로 억압받아온 그룹들, 미국 흑인, 아이티 출신, 중앙 아메리카 출신들이 받았던 수많은 사회적 낙인들을 경험하고 있다.

in cities in Michigan such as Detroit and Flint; that as Afro-diasporic people of color, queer Puerto Ricans and queer Latinas/os experience many of the stigmas faced by other immigrant and historically oppressed groups, by African Americans, by Haitians and Central Americans, even if our (second-class) U.S. citizenship places us in a different, specific context, as Manuel Avilés-Santiago discusses in his book *Puerto Rican Soldiers and Second-Class Citizenship: Representations in Media*.

Feminism and queer politics help us understand and surpass these impasses. Historically, multiple forms of feminism have empowered Puerto Rican and Latina women in the United States and throughout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o challenge patriarchy, social exclusion and injustice. This struggle continues to be relevant as women's reproductive health rights are challenged in multiple locations and as women continue to face workplace discrimination, lower salaries, multiple forms of violence and limited opportunities. LGBT and queer liberation has, in many cases, gone along hand in hand with feminist struggles as well as with civil rights movements that challenged social exclusion on the basis of race, migratory status,

and class. Feminisms and queer theories that do not account for the multiplicity of oppressions in an intersectional framework harm us and set our movement back. While Republican national leaders in the United States preach Islamophobia, it is frequently evangelical and other conservative Christians who espouse the most hatred towards women and LGBT persons. And it is well-meaning LGBT white persons who most systematically exclude the voices of queer people of color, maintaining spaces of white hegemony.

Radical thinkers such as Gloria Anzaldúa, Cherrie Moraga, Sylvia Rivera, James Baldwin, and Audre Lorde demand that we reflect critically on these exclusions and that we expand our creative use of aesthetic and communicative practices to address this situation. Unfortunately, scholars such as Javier Laureano and journalists such as Dan Avery point to the multiplicity of recent homophobic violence, not only in Orlando but also at the Madame nightclub in Xalapa, Veracruz, Mexico, where a large number of persons were shot and killed on May 22, 2016. Artists and communicators have already started to respond in creative and moving ways to address our grief, pain and outrage. As many of them remind us, love, understanding,

이러한 교착 상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페미니즘과 퀴어 정치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났던 페미니즘은 미국 내, 라틴 아메리카 전역, 캐리비안 지역에 거주하는 푸에르토리코 및 라틴계 여성들이 가부장제와 사회적 배제, 부당성에 저항하는 데에 힘을 실어줬다. 여성들의 성과 생식에 대한 건강 및 권리가 여러 지역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여성들의 직장 내 차별, 남성보다 낮은 임금,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기회의 제약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저항은 여전히 타당하다. LGBT와 퀴어 해방은 많은 경우 인종 문제, 이민자의 사회적 위치 문제, 계층에 기반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도전하는 시민 운동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저항과 줄곧 함께 해왔다. 교차 프레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억압을 설명하지 않는 페미니즘 및 퀴어 이론들은 유해하고 우리의 운동을 후퇴시킨다. 미국 공화당 지도자들이 이슬람혐오/공포에 대해 설교하는 한편,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여성과 LGBT인들을 향한 극심한 증오를 지지한다. 그리고 백인 헤게모니 공간을 유지하면서 유색 퀴어들의 목소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이들은 다름 아닌 선의의 백인 LGBT들이다.

글로리아 안살두아, 체리 모라가, 실비아 리베라, 제임스 볼드윈, 오드리 로드 같은 급진적 사상가들은 이러한 배제를 비판적으로 반추하고, 미학적이고 소통적인 실천을 창의적으로 확장, 활용함으로써 이 상황에 대해 발언할 것을

촉구한다. 하비에르 로레아노 같은 학자나 댄 에이버리 같은 저널리스트들은 최근에 동성애혐오로 일어난 다수의 폭력 사건을 언급한다. 올랜도뿐만 아니라 2016년 5월 22일 멕시코 베라크루스 살라파에 위치한 마담 나이트클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했다. 예술가들과 의사전달자들은 이러한 슬픔과 고통,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대응을 이미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이해, 용서야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하지만, 편협한 사람들, 비민주주의적 정부, 퇴행적 국가가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폭력의 문제를 건드리고 그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화와 분노 역시 유용하고 때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정이기도 하다. 퀴어, 페미니스트, 급진적 유색인종, 특히 급진적인 예술가, 행동주의자, 지식인으로 살아 남기 위해 우리는 어쩌면 사랑과 분노라는 모순을 끌어 안고, 이 감정들을 이용하여 도처에 만연한 몰살의 논리를 전복시켜야 할 지도 모른다.

and forgiveness are powerful tools that help us to heal and honor our victims and our dead, but rage and anger are also useful and at times absolutely necessary emotions that we must tap into to address the profound violence that is visited upon us by bigoted individuals, antidemocratic governments and repressive states. Perhaps, to survive as queer, feminist, radical persons of color, particularly as radical artists, activists, and intellectuals, we need to embrace the paradox of love and rage, and use these emotions to disrupt omnipresent logics of extermination.

References

Avery, Dan. "The Massacre No One Reported: Up to 15 Dead in Mass Shooting in Mexican Gay Bar in May." *NewNowNext.com* 17 June 2016. <http://www.newnownext.com/the-massacre-no-one-reported-up-to-15-dead-in-mass-shooting-in-mexican-gay-bar-in-may/06/2016/>

Avilés-Santiago, Manuel. *Puerto Rican Soldiers and Second-Class Citizenship: Representations in Med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Kornhaber, Spencer. "The Singular Experience of the Queer Latin Nightclub." (Interview with Ramón Rivera-Servera.) *The Atlantic* 17 June 2016. <http://www.theatlantic.com/entertainment/archive/2016/06/orlando-shooting-pulse-latin-queer-gay-nightclub-ramon-rivera-servera-interview/487442/>

참고문헌

덴 에이버리, 「누구도 보도하지 않은 대학살: 5월 멕시코 게이 바, 15명 사망」, 『뉴 나우 넥스트 닷 컴』, 2016년 6월 17일, <http://www.newnownext.com/the-massacre-no-one-reported-up-to-15-dead-in-mass-shooting-in-mexican-gay-bar-in-may/06/2016/>

마누엘 아빌레스-산티아고, 『푸에르토리코 군인과 제 2 계층 시민권: 미디어 재현』, 뉴욕: 램그레이브 맥밀런, 2014.

스펜서 콘하버, 「퀴어 라틴 나이트클럽의 독특한 경험」(레이몬 리베라-세르베라와의 인터뷰), 『디 애틀랜틱』, 2016년 6월 17일, <http://www.theatlantic.com/entertainment/archive/2016/06/orlando-shooting-pulse-latin-queer-gay-nightclub-ramon-rivera-servera-interview/487442/>

하비에르 로레아노, 「라파 올랜도」, 『80도』(산 후안, 푸에르토리코), 2016년 6월 17일, <http://www.80grados.net/de-xalapa-a-orlando/>

후아나 마리아 로드리게스, 「목소리: 퀴어 라틴인의 특성을 수용하는 LGBT 클럽, 인정하자」, 『NBC 뉴스』, 2016년 6월 16일, <http://www.nbcnews.com/storyline/orlando-nightclub-massacre/voices-lgbt-clubs-let-us-embrace-queer-latinidad-let-s-n593191>

저스틴 토레스, 「퀴어 클럽 라틴의 밤 예찬」, 『워싱턴포스트』, 2016년 6월 13일,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in-praise-of-latin-night-at-the-queer-club/2016/06/13/e841867e-317b-11e6-95c0-2a6873031302_story.html

스티븐 트레서린, 「라틴계 커뮤니티, 펄스 총격 사건 추모: 90% 라틴계」, 『가디언』, 2016년 6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6/jun/14/latino-hispanic-orlando-shooting-victims>

Laureano, Javier E. "De Xalapa a Orlando." *80 grados* (San Juan, Puerto Rico) 17 June 2016. <http://www.80grados.net/de-xalapa-a-orlando/>

Rodríguez, Juana María. "Voices: LGBT Clubs Let Us Embrace Queer Latinidad, Let's Affirm This." *NBC News* 16 June 2016. <http://www.nbcnews.com/storyline/orlando-nightclub-massacre/voices-lgbt-clubs-let-us-embrace-queer-latinidad-let-s-n593191>

Torres, Justin. "In Praise of Latin Night at the Queer Club." *Washington Post* 13 June 2016.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in-praise-of-latin-night-at-the-queer-club/2016/06/13/e841867e-317b-11e6-95c0-2a6873031302_story.html

Trasher, Steven W. "Latino Community Mourns Pulse Shooting Victims: '90% Were Hispanic.'" *The Guardian* 14 June 2016.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6/jun/14/latino-hispanic-orlando-shooting-victims>

-----, "LGBT People of Color Refuse to Be Erased after Orlando: 'We Have to Elbow in.'" *The Guardian* 18 June 2016.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6/jun/18/orlando-latin-lgbt-media-whitewash>

-----, "We Need to Be Angry to Overcome the Tragedy in Orlando." (Video.) *The Guardian* 15 June 2016. <https://www.theguardian.com/us-news/video/2016/jun/15/we-need-to-be-angry-to-overcome-the-tragedy-in-orlando-video>

Vázquez, Charlie. "Can We Stop Erasing Latinos from the Orlando Massacre Narrative?" *Latino Rebels* 17 June 2016. <http://www.latinorebels.com/2016/06/17/can-we-stop-erasing-latinos-from-the-orlando-massacre-narrative/>

-----, 「올랜도 사건 이후 유색인종 LGBT 제거 거부: '우리는 밀고 들어가야 한다」, 『가디언』, 2016년 6월 18일,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6/jun/18/orlando-latino-lgbt-media-whitewash>

-----, 「올랜도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노가 필요하다」(비디오) 『가디언』, 2016년 6월 15일, <https://www.theguardian.com/us-news/video/2016/jun/15/we-need-to-be-angry-to-overcome-the-tragedy-in-orlando-video>

찰리 바스케스, 「올랜도 학살 내러티브에서 라틴계 존재의 제거 과정을 멈출 수 있을까?」, 『라티노 리벨스』, 2016년 6월 17일, <http://www.latinorebels.com/2016/06/17/can-we-stop-erasing-latinos-from-the-orlando-massacre-narrative/>

I want a dyke for president. I want a person with aids for president and I want a fag for vice president and I want someone with no health insurance and I want someone who grew up in a place where the earth is so saturated with toxic waste that they didn't have a choice about getting leukemia. I want a president that had an abortion at sixteen and I want a candidate who isn't the lesser of two evils and I want a president who lost their last lover to aids, who still sees that in their eyes every time they lay down to rest, who held their lover in their arms and knew they were dying. I want a president with no airconditioning, a president who has stood on line at the clinic, at the dmV, at the welfare office and has been unemployed and laid off and sexually harassed and gaybashed and deported. I want someone who has spent the night in the tombs and had a cross burned on their lawn and survived rape. I want someone who has been in love and been hurt, who respects sex, who has made mistakes and learned from them. I want a Black woman for president. I want someone with bad teeth and an attitude, someone who has eaten that nasty hospital food, someone who crossdresses and has done drugs and been in therapy. I want someone who has committed civil disobedience. And I want to know why this isn't possible. I want to know why we started learning somewhere down the line that a president is always a clown: always a john and never a hooker. Always a boss and never a worker, always a liar, always a thief and never caught.

I Want a Dyke for President

Zoe Leonard

1992, Photocopied broadside distributed during 1992 presidential primary election, Courtesy of the artist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에이즈에 걸린 대통령과 동성애자 부통령을 원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독성 물질을 내뿜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곳에서 성장하여 백혈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을 원한다. 열여섯 살에 낙태를 경험했던 대통령을 원한다. 두 명 중 덜 악랄한 자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에이즈로 잃어버린 사람, 아직도 누우면 매일 눈 앞에서 그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 그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 에어컨이 없는 대통령을 원한다. 병원에서, 교통국에서, 복지부 사무실에서 줄 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실직자, 명예퇴직자가 되고, 성희롱, 동성애자 학대를 당하고 추방당한 경험이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무덤에서 밤을 지새고 자기 집 잔디밭에서 십자가가 불태워지는 걸 보고 강간에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을 원한다. 사랑을 하고 상처를 입어 본 사람, 섹스를 존중하는 사람, 실수를 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을 원한다. 나는 흑인 여성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충치가 있고 태도카안 좋은 사람, 크역겨운 병원 밥을 먹어본 사람, 다른 성(性)의 복장을 하고 마약을 해 보고 치료도 받아본 사람을 원한다. 시민 불복종을 실천해 본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왜 우리는 어느 시점에선가 대통령은 늘 광대여야 한다고 배우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늘 창녀가 아니라 존(John)이어야 하고, 늘 노동자가 아니라 간부여야 하고, 늘 거짓말을 하고, 늘 도둑질을 하면서도 절대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여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조이 레너드

1992, 199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배포된 선전물 복사본, 작가 제공

Contributors

Julia Bryan-Wilson is associate professor of contemporary ar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ere she teaches such classes as visual activism, feminist and queer theory, and histories of performance art. She is the author of *Art Workers: Radical Practice in the Vietnam War Era* (2009). Her book *Fray: Art and Textile Politics* is forthcoming in 2017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iuseppe Campuzano (Lima, 1969–2013) created the project *Transvestite Museum of Peru* in 2003, a queer, performative counter-reading of so-called “History of Peru”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gender. He is the author of *Museo Travesti del Peru* (2008) and *Saturday Night Thriller y otros escritos, 1998-2013* (2013).

Wilson Díaz is an artist based in Cali, Colombia. Díaz's practice includes music, painting, performance art, photography, and video. In his works is informed by the complex sociopolitical context of his native country. In capturing intimate moments and tracing complex constellations of human and political influence, his art offers persuasive alternative to conventional perceptions shaped by ideology and propaganda. Díaz is member of Helena Producciones, a grassroots collective formed in 1998.

Övül Ö. Durmuşoğlu is a curator and writer based in Berlin and Istanbul. She is the director/curator of YAMA screen in Istanbul. She has worked as curatorial and public program advisor for Gulsun Karamustafa's *Chronographia* at Hamburger Bahnhof in summer 2016 and co-editor for the upcoming extensive monograph. Durmuşoğlu has recently curated *Future Queer*, the 20th year anniversary exhibition for Kaos GL association in Istanbul.

Alejandro Gómez de Tuddo studied photography at the École Nationale de Photographie of Arles in France, and at the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ICP) of New York. He has also studied cinematography at New York University (NYU). His work has been exhibited worldwide in museums, galleries, art fairs and festivals, and now belongs to several private and public collections across the globe.

Lawrence La Fountain-Stokes is Associate Professor of American Culture, Romance Languages and Literatures, and Women's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and the former director of the Latina/o Studies Program (2011-2016). He has published *Queer Ricans: Cultures and Sexualities in the Diaspora* (2009), *Uñas pintadas de azul/Blue Fingernails*

만든 사람들

줄리아 브라이언-윌슨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에서 현대미술 부교수로 재직하며 시각적 행동주의, 페미니즘, 퀴어 이론, 퍼포먼스 미술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술노동자: 베트남 전쟁 시대의 급진적 실천』(2009)이 있고, 『프레임: 미술과 텍스타일 정치』가 2017년 시카고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취세페 캄푸자노(리마, 1969-2013)는 2003년, 트랜스젠더의 관점에서 ‘페루의 역사’를 퀴어-퍼포먼스적으로 다시 읽어가는 프로젝트인 <페루의 복장도착 미술관>을 기획했다. 저서로는 『페루의 복장도착 미술관』(2008)과 『토요일 밤의 스틸러와 그 밖의 글들 1998-2013』(2013)이 있다.

윌슨 디아즈는 콜롬비아 칼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음악, 회화, 퍼포먼스,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국의 복잡한 사회정치적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진밀성의 순간을 포착하고 복잡한 인간적, 정치적 영향 관계의 지도를 따라가면서 디아즈는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로 구축된 전통적인 시각을 대신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디아즈는 1998년 결성된 풀뿌리 콜렉티브 엘레나 프로두시오네스의 멤버이다.

외볼 두르무쭈글루는 베를린과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 겸 저자로, 이스탄불 야마 스크린의 디렉터/큐레이터를 맡고 있다. 2016년 여름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베를린 신국립미술관)에서 선보인 굴순 카라무스타파의 <크로노그라피아>에서는 공공 프로그램 자문을 맡았고, 현재 기획 중인 보다 확장된 모노그래프의 공동 편집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탄불 카오스 GL 연대협의회의 20주년 기념 전시 <미래의 퀴어>를 기획했다.

알레한드로 고메스 데 투도는 프랑스 아를르 국립사진학교와 뉴욕 국제사진센터(ICP)에서 사진을, 뉴욕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그의 작업은 세계 각지의 미술관, 갤러리, 아트 페어, 미술 페스티벌에서 전시, 소개되었고 각국의 사립 및 공공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로렌스 라 폰테인-스토크스는 미시건대학교 로망스어문학 및 여성학부, 미국문화학 전공 부교수로, 2011-2016년까지 라틴계 인종학 프로그램의 디렉터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퀴어 리칸: 디아스포라 시대의 문화와 섹슈얼리티』(2009), 『파란 손톱』(2009), 『아볼리시온 델 파토』(2013), 『퀴어 역사의 개요와 변형 가능한 설명』(2016) 등이 있다.

조이 레너드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전시를 시작했고, 1992년 도큐멘타 9에 선보인 설치 작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2018년 LA 현대미술관에서는 레너드의 회고전이 열릴 예정이다. 『옥토버』, 『텍스트 추르 쿤스트』, 『LTTR』 등에 글을 기고해왔고, 1991년 결성된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콜렉티브인 피어스 푸시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현재 바드컬리지 밀턴 에이버리 대학원에 재직하며 강의하고 있다.

(2009), *Abolición del pato* (2013), and *A Brief and Transformative Account of Queer History* (2016).

Zoe Leonard is an artist based in New York. She has exhibited since the late 1980s and became well-known internationally following her installation at Documenta IX in 1992. An American retrospective of her work will begin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CA, in 2018. Her writings have appeared in *October*, *Text zur Kunst*, and *LTTR*. She is a founding member of the feminist artist collective fierce pussy formed in 1991. She is faculty at Milton Avery Graduate School of the Arts at Bard College.

Miguel A. López is a Peruvian researcher and writer. He is Chief Curator of TEOR/ÉTica in San Jose, Costa Rica. His work focuses on queer re-articulations of history from a Southern perspective. He has published in periodicals such as *Afterall*, *Manifesta Journal*, *E-flux Journal*, *Art Nexus*, *Art Journal*, among others. He has recently curated *Teresa Burga. Estructuras de aire* (with Agustín Pérez Rubio) at the MALBA, Buenos Aires (2015) and the section *God is Queer* for the 31 Bienal de São Paulo (2014).

Carlos Motta is a Colombian artist based in New York. His work has been included in solo and group exhibitions at Tate Modern, London; Guggenheim Museum, New York; MoMA/PS1 Contemporary Art Center, New York; Barcelo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ala de Arte Público Siqueiros, Mexico City; 32 Bienal de Sao Paulo and other venues. He was the recipient of the PinchukArtCentre, Future Generation Art Prize in 2014.

Jabulani Chen Pereira is a queer, trans activist from South Africa. Jabulani founded a queer visual media organisation called Iranti-org in 2012. Iranti uses media tools to tell African Queer stories of their lived experiences. Jabulani has a master degree in museum studies from New York University (NYU), and identifies as an activist, curator and experiential in linking the arts and human rights.

Cecilia Vicuña is a Chilean poet, artist, and filmmaker. The author of twenty two poetry books published in Europe, Latin America, and the U.S., she performs and exhibits her work widely. At the forefront of conceptual, permanent art and improvisatory oral performance, her work deals with the interactions between language, earth, and textiles. Since 1980, she divides her time between Chile and New York.

미겔 로페즈는 페루 출신의 연구자 겸 저자이다. 현재 코스타리카 산호세 때오레티카의 수석 큐레이터이다. 그의 연구/활동은 남반구의 시각에서 역사를 퀴어적으로 재기술(re-articulation)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로페즈는 『에프터윌』, 『마니페스타 저널』, 『이플럭스 저널』, 『아트 넥서스』, 『아트 저널』등에 기고해왔다. 2015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말바(MALBA)에서 <테레사 부르가, 공기의 구조>를 아구스틴 페레즈 루비오와 공동으로 기획했고, 2014년 제 31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신은 퀴어다> 섹션 큐레이터를 맡았다.

카를로스 모타는 콜롬비아 출신으로, 뉴욕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런던 테이트모던,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PS1 현대아트센터,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 맥시코시티 시케이로스 퍼블릭 아트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이 열렸고, 제32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 국제 미술 전시에도 작업을 폭넓게 선보여 왔다. 모타는 2014년 키에프 핀чук아트센터의 미래세대미술상을 수상했다.

자불라니 첸 페레이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퀴어, 트랜스 행동주의자로, 2012년 이란티-org(Iranti-org)라는 이름의 퀴어 시각미디어 조직을 설립했다. 이란티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아프리카 퀴어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페레이라는 뉴욕대학교에서 뮤지엄 스터디스 석사 학위를 받았고, 스스로 행동주의자, 큐레이터, 예술과 인권을 잇는 경험자로 규정한다.

세실리아 비꾸냐는 칠레 출신의 시인, 아티스트, 영화감독이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미국에서 22권의 시집을 발간했고, 예술 작업도 폭넓게 공연, 전시해왔다. 개념적이고 비영구적이며 즉흥적인 구술 퍼포먼스를 이끄는 그녀는 작업을 통해 언어와 대지/흙, 텍스타일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1980년부터 칠레와 뉴욕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